

## 3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조정 [DOW: 7,400.8pt (-1.15%)]	뉴욕증시는 개장초만 해도 주요 지수들이 1% 안팎 상승하며 추가 반등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이익실현 매물이 증가하며 주요 지수들이 장중 약세로 전환했음. 뉴욕증시는 최근 7일중 6일간 상승했고, 특히 S&P 500 지수의 최근 7일간 상승률은 17%에 달했음. 이같은 단기 상승폭은 1939년 이래 가장 컸음.
은행주 차익매물	개장초만해도 은행주들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이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은행주들이 장중 약세로 돌아섰음. 개장초 20% 이상 급등했던 씨티그룹은 15% 하락했고, 오전중 10% 안팎 상승했던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10% 가까이 떨어졌음.
국채매입 후폭풍 지속	미 연준의 국채매입이 인플레이 우려와 달러화 약세를 촉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원자재 상품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하며 금값과 국제유가가 동반 급등했음. 미 달러화는 오후 4시 현재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유로-달러 환율은 1.4780% 급등(달러가치 급락)한 1.3674 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장중 유로-달러 환율은 1.37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음.
경기지표는 아직도 `한겨울`	미 노동부는 이날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7일 마감 기준)가 전주대비 18만 5,000건 급증한 547만건에 달했다고 밝혔음.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수준임. 증가수도 역대 2번째로 많았음. 또 지난주(14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64만 6,000건(계절조정)에 달하여 전주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7주 연속 60만건을 넘어서 미국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줬음.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0.1%(수정치)에서 -0.4%로 악화되었음.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하게 해 주는 지표임. 이번 결과는 당분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함.
국채매입 여파로 50달러 돌파 [WTI: \$51.61 (+\$3.47)]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을 각각 3,000억달러와 75,000억달러씩 새롭게 매입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유가의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음. 연준이 이같은 결정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을 초래했고, 달러화 표시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이어졌음. 이같은 마감가는 작년 11월28일 이후 최고가임.

제목	주요 내용
IMF, 세계경제 올해 -0.5~-1%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미국과 일본 경제가 올해 각각 -2.6%와 -5.8%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이 -0.5~-1.0%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 2.2%로 제시됐다가 지난 1월 0.5%로 하향조정된 뒤 이번에 또 급격하게 조정된 것임.
환율 1300원대 진입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5.50원 급락한 1,396.00원으로 거래를 마감. 환율이 1,400원을 밑돈 것은 지난달 11일 1,393.50원 이후 한 달여 만임. 이날 환율은 41.50원 폭락한 1,38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401.50원으로 상승한 뒤 오후 들어 1,377.00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장 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다소 올랐음.
공기업 외화차입 쉬워진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해 외화 차입을 억제했던 규정을 대폭 풀었음. 또한 조만간 공기업 평가편람도 고쳐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기업 외화 채권이 한국물 중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채권이므로, 발행을 활성화해 국내 외화 유동성을 풍부히 하자는 의도로 풀이됨.
EU, 50억유로 추가부양 합의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2010년까지 사회간접자본에 50억유로를 투입하는 합의안을 승인. 메르켈 총리는 "이번 부양책의 근본적 부분은 2010년까지 추진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금 투입은 위기 진화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日, 추가 긴급고용대책 1조5000억엔 투입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스조에 후생노동상은 이날 내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인 추가 긴급고용대책 사업규모가 총 1조5000억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
BOJ "생산위축 속도 둔화 예상"	일본중앙은행(BOJ)이 "재고 조정 압박이 줄어들면서 생산활동 위축 속도 역시 둔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 BOJ는 3월 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유지.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